

退溪學派의 『禮記』 해석에 대한 고찰

유권종*

|| 차례 ||

1. 서언
2. 조선 예학과 『예기』
3. 퇴계학파의 주요 예학자와 『예기』 관련 저술
4.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
5. 결론: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의 특징

【국문초록】

본 연구는 퇴계로부터 재전 제자까지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禮記』에 관한 해석의 사실을 밝히고, 그 해석의 내용 및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퇴계의 학맥에서 『예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방식은 고증적 방식과 해석적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고증적 방식은 이미 퇴계에게서 단편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예기』를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고증의 방식을 취한 것은 학봉과 서애의 『상례고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미수의 『경례유찬』, 「십이월령고정」도 그러한 전통을 잇는 저술로 인정될 수 있다. 또 해석적 방식은 지산의 「곡례수장도」와 우복의 『사문록』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사문록』은 재전제자까지의 퇴계학맥으로 볼 때에 『예기』 해석의 치밀함과 아울러 고증에 입각한 변석이 매우 돋보이는 저술이다.

퇴계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예기』 해석의 특징은 우선 퇴계로부터 재전 제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저술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점, 즉 퇴계에게서는 단편적인 경문의 인용을 통해서 예설을 확정하던 방식이었던 것이 서애와 학봉 그리고 미수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례와 제례를 전문적으로 고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전문화가 이루어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우복의 『사문록』과 같이

* 중앙대 철학과

고증은 물론 치밀한 이기론적 철학적 분석에 입각한 『예기』 해석이 성취되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또 미수의 『경례유찬』과 같이 왕과 제후 대부 사 등의 신분에 따라 차등을 엄격히 강조하는 예를 『예기』 등의 경전으로부터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곡례수장도」처럼 예학과 성학을 결합시킨 저작이 이루어진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퇴계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예기』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성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녔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퇴계 학맥, 『예기』, 『사문록』, 고증, 「곡례수장도」

1. 서언

본 연구는 퇴계학맥에서 이루어진 『禮記』에 관한 해석의 사실을 밝히고, 그 해석의 내용 및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예기』는 조선 시대 초기부터 예학의 경전으로서 여러 학자들의 독서와 강론의 대상이었고, 『朱子家禮』, 『儀禮』 등과 더불어 각종 예설의 근거로서 인용되거나, 올바른 예의 구명을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취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매우 많은 『예기』해석의 사례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모두 추적하여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비교적 뚜렷하게 『예기』의 전체 혹은 그 일부를 별도의 대상으로 삼아 일종의 경학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이루어진 저술들을 주 고찰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경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전의 문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모아서 일정한 자료집 형태의 저술을 만드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經文이나 傳文에 대한 훈고와 고증 변석 등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경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확증해가는 학문적 작업과 그 결과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논문의 고찰 범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룰 퇴계학파의 범위도 퇴

계의 재전 제자의 단계에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퇴계학파가 그 범위에 국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파라는 범주으로써 퇴계와 그의 문인들 혹은 그의 학문적 계승자들을 포함하고 그 동질성을 논하는 것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점인데,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퇴계부터 그의 재전 제자의 시기까지에 이루어진 저술들 가운데 『예기』를 경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연구한 저술은 많지 않다. 따라서 『예기』의 經과 傳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한 저술들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한 저술등도 고찰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송학이 발흥하면서 『예기』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경전으로 독립한 『大學』과 『中庸』에 관한 경학적 연구는 『예기』에 관한 경학적 연구와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예기』에 대한 퇴계학파의 해석의 특징을 밝히는 한편,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논의된 퇴계학파의 예학적 특징을 연관지어 논의하기로 한다.

2. 조선 예학과 『예기』

조선의 유학자들로서 『예기』에 관한 경학적 연구가 본격화된 역사의 근원은 조선초기의 陽村(權近)에게로 소급된다. 그의 『禮記淺見錄』은 『예기』에 관한 경학적 연구성과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이후 많은 유학자들이 『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독서와 강학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양촌의 저술 이후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예기』의 경학적 연구성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조선의 경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예기』에 관한 경학적 연구성과와 저작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예를 들면 沙溪(金長生)의 『經書辨疑』라든가, 遲川(崔錫鼎)의 『禮記類編』, 愚伏(鄭經世)의 『思問錄』과 같은 것은 기호와 영남에서 각각 예학이 자체의 발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학적 연구성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것이 기호 예학의 맥락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살았던 淸沙(金在魯)의 『禮記補註』라든가, 퇴계의 학맥에서는 기호남인의 順菴(安鼎福)의 『禮記集說補』와 같은 형태의 저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의례』와 『주자가례』를 중시하던 상황에서 조선초에 중시되었던 『예기』가 다시 중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는 『의례』와 『주례』에 대하여 『예기』가 그들의 이해에 대한 보완적인 경전의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기』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이 무렵의 학자들이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가치가 무엇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후 이들의 경학적 저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논해야 할 것이다.

이 학자들보다 앞서서 『예기』를 연구했던 陽村의 경학적 문제의식은 程子和 朱子の 「대학」 「중용」 장구 작업과 같은 경전의 편차 조정 및 체제 정립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중용」과 「대학」 이외의 『예기』 경전의 편차를 정립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²⁾ 물론 그의 『예기천견록』에 표명

1)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25쪽에서는 15세기에는 『周禮』와 『禮記』가, 16세기에는 『儀禮』와 『朱子家禮』가 중시되었으며, 17세기 초반에는 『儀禮』와 『朱子家禮』 외에 다시 『禮記』가 부각된다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부각된다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예기』에 관한 경학적 연구가 본격화되고 그 결과로서 『예기』에 관한 주석을 담은 저술이 출판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예기천견록』서

된 예에 관한 견해들은 고례의 의미와 체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추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秦火 이래 흐트러진 『예기』의 편차와 장절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예기천전록』에 기본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예기』로부터 고례의 원형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작업도 역시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태도가 16세기의 성리학자들에게 계승되면서 고전적 의례의 원형이나 원리를 『예기』로부터 구하는 학풍을 이룩했다고 추정된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의 관점을 빌면, 『예기』는 단순히 『의례』의 예문에 대한 보조적인 해설로서의 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기』는 『의례』보다도 더 풍부하게 古禮의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경전이다.³⁾ 또 중국의 戰國時期부터 秦漢 교체기에 걸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예기』가 지니는 장점은 『의례』의 그것과 구별되어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례』는 주로 士 계급의 고례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장점을 찾을 수 있다면, 『예기』는 이미 춘추시기와 전국시기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그 권위와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던 고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전국말 진한 교체기의 儒者들이 시도했던 고례에 대한 재해석이 담겨 있다는 데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⁴⁾ 그리고 그 고례도 단지 士禮에 한정되지 않고 「王制」편과 같이 왕조례에 해당하는 예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할 내용과 가치가 작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기』는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고례에 관한 풍부한 이해와 더불어 『의례』, 혹은 『주자가례』와 같은 예서들의 예문에 대한 해석학적

3) 鄒昌林, 2000, 『中國禮文化』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34~45쪽 참조

4) 上同

자료와 관점을 취득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써 조선의 유학자들은 고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고례를 회복하면서도 時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혜를 『예기』로부터 얻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眉叟의 『經禮類纂』의 서문이다. 性齋(許傳)에 의해 작성된 이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예기』 역시 선왕의 예인데 세간에서 어떤 이는 그 속에 漢儒의 傳會가 있어서 의심스럽게 여기지만, 대체적으로 (『예기』는) 古經인 것이다. 삼대의 다스림에 뜻을 둔 사람이 이 三禮를 버려두고 어떻게 하겠는가?(중략) 그러나 예에는 고금에 시의의 다름이 있고, 시속의 부동이 있으며 王侯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대부 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대부 사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왕후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 망령된 생각에 선생은 장차 이로써 참작하고 수운하여 貴賤을 구별하고 上下를 가르치고 민지의 정하고자 하였으나 저술로 완성하지는 못하였을 뿐이다.⁵⁾

물론 『경례유찬』은 전반적으로 『예기』의 예문에 근거해서만 편찬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예기』의 경문을 많이 인용하고 기준으로 삼으면서 시의에 적합한 예를 정립하고자 한 점에서 일정한 해석학적 관점이 작용하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해석학적 관점은 무엇보다도 王侯와 대부사의 예가 貴賤과 上下 등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된다는 관점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5) 眉叟全集 下(여강출판사 1985년 영인본) 989쪽, 「經禮類纂序」, 禮記亦先王之禮而世或以間有漢儒之傳會爲疑 然大體古經也 有志於三代之治者 舍是三禮 奚以哉 (중략) 然禮有古今之異宜 幼時俗之不同 有可用於王侯而不可用於大夫士者 有可用於大夫士而不可用於王侯者 妄意先生將以是參酌修潤 以別貴賤 以辨上下 以定民志 而未及成書者耳

3. 퇴계학파의 주요 예학자와 『예기』 관련 저술

예학과 관련하여 볼 때 퇴계의 학맥을 형성한 직전 제자들은 月川(趙穆) 艮齋(李德弘) 鶴峯(金誠一) 西厓(柳成龍) 寒岡(鄭述) 栢潭(具鳳齡) 芝山(曹好益) 勿巖(金隆) 등이고, 예학과 관련깊은 재전 제자는 서애의 제자 愚伏(鄭經世) 蒼石(李垞), 寒岡의 제자 眉叟(許穆) 등이다. 재전 제자들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퇴계학파는 心學과 禮學의 상호의존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聖學의 전통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실천적 학풍으로서 성학은 太極, 天命, 心性 등 본원적인 문제에 대한 理氣論的 천착은 줄어들고 퇴계당시의 논쟁적 태도도 지속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聖學의 원리를 따라서 心得 自得을 위한 眞知와 實踐, 致知와 力行을 지향하는 工夫가 일반화하였다. 이렇게 심득 자득을 위한 방법을 心法이라고 하는데, 심법에 포함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부가 바로 예의 학습과 실천이었다.⁶⁾

퇴계는 「延平答問跋」 『朱子書節要』 『宋季元明理學通錄』 「易東書院記」 「景賢錄改正」 「靜庵趙先生行狀」 등의 저술로써 道統의 전수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을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정립하는 한편, 『改訂天命圖』 「答黃仲舉書論白鹿洞規集解」 「心經後論」 『聖學十圖』를 비롯한 「答奇高峯書辯四端七情」 「心無體用辯」 「答奇明彥書改致知格物說」 『啓蒙傳疑』 등의 저술들에서 心과 性情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천착을 시도함으로써 그의 道學은 心學化 경향이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士林派의 道學이 『小學』 위주의 공부를 중시했다면, 퇴계 이후는 그 입장을 聖學속에 수용하면서 다시 『心經』에 입각하여 心法을 터득하는 공부를 강조한 점이 뚜렷한 차이이다. 『聖學十圖』는 심학의 원리(心法)가 근간이 되는 聖學을 보여준다.

6) 참고, 2003, 「퇴계의 심학과 예」, 한국사상사학 21, 한국사상사학회.

이러한 성학의 추구에서 중요한 사실은 퇴계와 그의 문인들이 예의 원리적 근거와 다양한 규범 형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예학에 대한 천착이 있었다는 점이다. 퇴계를 비롯하여 그 문인들은 冠昏喪祭의 儀禮를 비롯한 다양한 儀禮절차와 기물 또는 變禮의 해석 등에 관하여 매우 정밀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학풍이 퇴계 문인들로 하여금 禮書를 편찬하고 禮經 禮書에 대한 주석을 달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聖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규범을 정립하는 사업인 셈이다. 대표적인 예서는 다음과 같다. 퇴계와 제자들의 喪祭禮에 관한 문답을 편집한 『退溪喪祭禮問答』, 『이선생예설』, 鶴峯의 『喪禮考證』, 서애의 同名의 書, 寒岡의 『昏儀』 『冠儀』 『五先生禮說分類』 『家禮輯覽補註』 『禮記喪禮分類』, 芝山の 『家禮考證』, 「曲禮首章圖」, 勿巖의 『家禮講錄』 등이 있고, 서애의 문인인 愚伏의 『思問錄』, 蒼石의 「宴居備覽十箴 并疏」, 한강의 문인인 眉叟의 「十二月令考訂」 『經禮類纂』 등이다.

퇴계학파의 禮學은 우선 퇴계가 지닌 禮經과 禮書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퇴계는 三禮 가운데 『周禮』에 대해서는 그 실천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반면에 『儀禮』 『禮記』에 대해서는 예를 연구할 때에 고증적 전거와 합당한 판단의 근거의 원천으로서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그는 『朱子家禮』 『儀禮經傳通解』 『丘氏家禮』 『張子語』 『高氏喪禮』 및 『國朝五禮儀』 등 주로 儀禮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의 禮學은 경전에 근거하여 예문의 타당성을 고증하거나 이치 또는 시의에 입각하여 예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면서도 명분과 의리가 갖추어진 예 실천적 규범의 체계를 정립한 점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禮學의 태도가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고 계승 강화되었던 것이다.

퇴계 이후의 예학은 『주자가례』에 대한 고증과 훈고 등의 실증적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통하여 『주자가례』의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흐름과, 『주자가례』를 벗어나서 禮經에 대한 주석이나 그에 입각한 실천 儀禮의 정립 내지는 朱子 이전의 北宋시대의 禮사상과 儀禮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는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家禮輯覽補註』 『家禮講錄』 『家禮考證』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五先生禮說分類』 『禮記喪禮分類』 『思問錄』 『十二月令考證』 『經禮類纂』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더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실증적 典據와 事例를 동원하여 合禮的 판단의 진실한 기준을 연구했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할 때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의 사례로서 고찰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 鶴峯(金誠一)과 西厓(柳成龍)의 『喪禮考證』, 寒岡(鄭述)의 『禮記喪禮分類』, 眉叟의 『경례유찬』, 『十二月令考訂』과 같은 고증적 고찰의 부류, 두 번째 『예기』에 관한 부분적 고찰로서 芝山(曹好益)의 『曲禮首章圖』, 세 번째 『예기』 전반에 관한 해석과 연구로 愚伏(鄭經世)의 『思問錄』 등이다.

4. 퇴계학파의 『예기』 해석

1) 퇴계의 『예기』에 대한 태도와 실례

퇴계의 문하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전통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러한 전통의 시원은 일단 퇴계의 『예기』를 대하는 학문적 태도로부터 구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퇴계의 문집에는 『예기』를 전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고찰하거나 그것에 대한 해설 혹은

주석을 행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제자들의 문의에 대하여 답할 때 『예기』의 글을 인용하여 답하는 사례가 여러 서신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퇴계선생문집』 권38의 「趙起伯의 問目에 답함」에서 4대 봉사의 학문적 근거에 대한 답을 할 때 『禮記』大傳의 글을 인용하여 고례에는 반드시 4대봉사가 원칙이 아니었고, 정자의 예와 『주자가례』에 의하여 사대부의 4대봉사가 철칙으로 확립되었던 사실을 밝히는 점, 『예기』 鄉飲酒義의 글을 통해서 향법과 향례를 건립하는 원리 등에 대한 해명을 하였던 점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예들은 퇴계가 『예기』의 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입각하여 해당되는 예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 퇴계는 『예기』뿐만 아니라 『의례』, 『주자가례』, 『구씨의절』, 『주역』 등으로부터 함께 행례의 올바른 근거가 될만한 것들을 고루 참조하여 행례에 관한 의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태도는 비록 『예기』에 대한 전문적인 탐구와 해명의 업적을 낳지는 않았지만, 후학들로 하여금 여타 경전들과 더불어 『예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써 4대봉사에 관한 퇴계의 추론을 인용하고자 한다.

4대조까지 제사지내는 것은 古禮에도 다 그렇지는 않았습시다. 『禮記』大傳에, 大夫士는 큰 일이 있으면 그 임금에게 허락을 얻어 高祖까지 干祿할 수 있다. 하였는데, 논설하는 이는 祿祭는 본래 諸侯의 제사 이름이니 대부로서 고조까지 습祭하는 예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간협이라 한다. 하였습시다. 이로써 살펴보면 4대까지 제사지내는 것은 본래 제후의 예이고 대부는 집에 큰일이 있어 공을 세우면 반드시 그 임금에게 고한 뒤에 고조까지 제사지낼 수 있으며, 이것을 고하는 것은 常祭가 아닙니다. 뒤에 와서 정자가 말하기를, 고조는 有服之親이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하였고, 『주자가례』에도 정자의 논설을 따라 4대까지 제사지내는 예를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옛날에는 代마다 각각 사당을 달리하여 그 제도가 매우 컸으므로 대

수의 등급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는 1廟만 만들고 龕室을 나누어 제사지낼 뿐이니, 제도가 매우 간술하여 오히려 대수를 통용하여 지낼 수 있으므로 옛날의 예를 변경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른바 '예는 비록 옛날에 없었더라도 의리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義起]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3대까지 제사지내는 것은 時王의 제도이고 4대까지 제사지내는 것은 程子 朱子の 제도입니다. 힘이 미칠 수 있으면 통용하여 행하는 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⁷⁾

퇴계는 『예기』 대전의 글을 통해서 고례에서 대부가 4대까지 제사지내는 예는 고례에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정자와 주자에 의하여 대부에게 4대봉사가 일반화되는 예론이 확립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고례를 따르는 것이 원리라고 하면서도 의리에 입각하여 정자와 주자의 예론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퇴계가 『예기』를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즉 그는 현실에 합당한 예의 근거와 원리를 구하고자 할 때 『예기』의 예문을 참조하고 전거로 삼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곧 후학들의 『예기』에 대한 고찰의 심도를 더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고증서류

여기서 말하는 고증서류란 『예기』의 예문을 근거로 기존의 실행되던 예, 특히 『주자가례』의 예의 타당성과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의 결과로 이루어진 저술류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애의 『상례고증』과 학봉의 『상례고증』 및 한강의 『예기상례분류』와 같은 서적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상례에 관한 『예기』의 예문을 인용하여 상례의 체제와 그 세부적 예문을

7)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2001, 『국역퇴계전서』9, 196쪽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술들이다. 이 가운데 현재 한강의 서적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찰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서애와 학봉의 저술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이들은 상례의 의례 규범과 절차 등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기』의 상례 관련 예문을 근거로 그 타당성을 고증하는 방식의 저술로 보인다.

이러한 저술들은 상제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대체로 喪中에 『예기』를 독서하게 되고, 그 결과 『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서애는 그의 「題喪禮考證後」에서 『주자가례』를 綱으로 하고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예기』의 예문을 그 구체적인 절목으로 편찬한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학봉의 『상례고증』은 그것과는 구조가 꼭 같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애의 것이든 학봉의 것이든 모두 『주자가례』를 근거로 하여 『상례고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지만,¹⁰⁾ 논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래 상례의 체제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큰 목적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봉의 『상례고증』의 체제의 구성 방식과 그 내용이 실상은 상례 관련 『예기』의 원 예문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더 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구성방식은 『예기』 가운데 상례와 관련이 있는 편들, 즉 雜記, 喪大記, 檀弓, 喪服小記, 問喪, 曲禮 등의 글에서 예문을 가져오고, 그것과 관련된 注疏를 부기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체제를 『주자가례』에 맞는가 아닌가의 여부로 보기보다는 상례의 고례적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8) 고영진, 앞의 책, 159~167쪽 참조.

9) 『西厓先生文集』 권 18, 「題喪禮考證後」, 余喪中讀禮記 既昏塞過一二篇輒忘失且患其記載浩博而雜出 愈難於參考也 於是家禮所載群目爲綱 而其間節目 各以類附焉 分爲上中下三編

10) 고영진, 위와 같은 곳.

이러한 저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것이 眉叟의 『경례유찬』이다. 이 저술 역시 『의례』와 『예기』에서 상례와 제례에 관한 예문들을 근거로 상례와 제례의 의례 체제로 재구성한 저술이다. 전체 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의 4권까지 상례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1권이 제례에 관한 것이다. 『경례유찬』에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체제와 의절의 구성이 『주자가례』보다는 『의례』와 『周禮』 『예기』를 중심으로 그들에 담긴 古禮를 회복하고자 하는 관점과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례에서 尸를 사용하는 예를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隋 夔逆牲逆尸, 相尸禮 등의 예문에서 尸를 사용하는 예는 후일 茶山(丁若鏞)이 그의 『제례고정』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시의가 없어진 예이며 당시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예이다.¹¹⁾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미수는 『예기』를 통해서 대부사와 구별되는 천자와 제후의 예를 확인하고 그것에 관한 예규범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례뿐 아니라 제례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례 조항에 備凶事라는 조항을 두고, 그 속에 『예기』 檀弓과 王制의 예문을 근거로 왕의 흉사에 대비하는 의례 조목을 설치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¹²⁾ 이외에도 제례를 다룬 권에서는 『주례』와 『의례』의 예문을 인용하고 注疏의 설을 해설로서 부기하는 방식으로 왕후의 예를 밝히고 있다.

미수의 이와 같은 성격의 저술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十二月令考訂』이다. 그런데 이는 『미수전집』에 실리지 않아서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서문이 『기언』에 전한다. 이에 의하면 이 저술은 古昔 聖王의 예제를 『예기』 『춘추』 『주관』 등의 당우시대의 고전과 기타 여러 성인의 서적들

11) 『祭禮考定』 祭儀考

12) 『미수전집』 하 『경례유찬』 권2 참조

로부터 징험할 수 있는 예를 모아서 분류하고 그것을 12월령의 차례에 맞추어 고례를 考訂한 것이다. 고정된 내용은 節序 時物의 변화, 水旱 凶札 陰陽 災異의 조짐, 郊天 祭地 종묘 禘嘗의 뜻, 升沉 瘞埋 四燎 六宗 七祀 八蜡의 보은, 庠序 學校 養老 食饗 禮樂 敎化의 방편, 巡狩 朝覲 會盟 田獵 籍田의 의식, 車輿衣服의 등급, 征伐 六師의 위의, 賞刑 政令의 시행, 耕耘蠶績의 근면함의 일들을 천자 제후로부터 대부 사는 물론 農工百隸의 업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³⁾ 이 역시 미수에게서 『예기』를 비롯한 고례를 다룬 예경들이 고례를 회복하고 그에 입각한 당시의 예제의 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되었음을 시사하는 점이다.

3) 『예기』해석류

(1) 「곡례수장도」

원래 영남 지역에서 살다가 평안도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된 지산은 『家禮考證』을 통해서 퇴계학파의 예학적 맥락을 잇는 학문적 성과를 산출한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가례고증』 외에 『예기』 「곡례」편의 首章인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로써 일종의 문자도를 만들었다. 매우 내용이 간략하지만, 이는 그의 『예기』 해석이 퇴계에 의해서 진지하게 탐구된 심학 또는 성학의 과제를 곡례편의 수장을 통해서 구조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하는 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그의 분석적 설명과 그것을 구조화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는 毋不敬에 대해서 身心內外가 털끝만큼의 不敬이 없는 상태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몸과 마음의 일관된 敬의 태도를 추구하는 것은 곧

13) 『미수전집』상 記言 권4 「십이월령고정서」

퇴계로부터 강조된 경의 원리에 입각한 수양의 원리를 『예기』에서 일반화 하려고 하는 학문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이를 함양과 성찰의 총론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둘째 儼若思에 대해서는 용모가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하여 마치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함양 때의 敬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安定辭는 성찰 때의 敬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말씀하는 것이 반드시 안정되어서 급하게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셋째, 安民哉의 의미는 이러한 세 가지 태도로써 백성에게 임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않을 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를 위 세 가지 방법의 효용이라고 간주한다. 이 문자도에 의하면, 毋不敬이 중추적 원리라면 이는 그것의 實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산의 문자도로서 「곡례수장도」는 간략한 구조를 지녔고, 『예기』해석으로서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경을 중시하는 퇴계 성학의 원리를 『예기』로부터 확인하고 구조화한 점에서 예에 입각한 성학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는 예학적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2) 『思問錄』

퇴계 학맥에서 본격적인 『예기』해석서로서 주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저술은 愚伏의 『思問錄』이다.¹⁴⁾ 연보에 의하면 『사문록』은 愚伏이 光海君 17년(1617) 沈愾 사건에 의해 체포되어 이듬해 석방된 이후 仁祖反正(1623)으로 관직에 복귀하기까지 약 6년간 향리에 거하는 기간에 집필된 것이다. 「答裴明瑞」에서 『사문록』은평소 독서할 때에 의심스럽고 어렵게 생각되던 것들이 속에 가득찬 것을 손가는 대로 ㄱ집어 내어서 기록하여 한

14) 사문록과 관련된 내용은 줄고, 1996, 「우복의 예학사상」, 『우복정경세선생연구』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권의 책을 만든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¹⁵⁾ 『사문록』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이미 환갑을 맞이한 노인이었으므로 『사문록』은 그의 經學의 완숙함이 배어있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문록』은 크게 易學과 禮學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역학을 제외한 예학관련 부분의 구성은 『禮記』의 여러 편, 黃榦의 『儀禮經傳通解續』, 楊復의 「大祥服圖」 등으로 구분된다. 『예기』에 대해서는 모두 74條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儀禮經傳通解續』은 한 항목에 불과하다. 마지막 大祥服圖는 楊復의 『儀禮喪服圖式』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렸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사문록』의 『예기』에 대한 저술 형식은 해당 원전의 본문 또는 그에 대한 註說을 소개하고, 그 내용 중에 문제되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견해의 타당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經文 다음에 자신의 按說을 제시하고 이어 잘못된 註說 혹은 經文의 오류를 변별하는 논증을 펴는 방식이 혼용되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단정의 방법을 취하는 비율이 높다.

『사문록』 편찬의 동기 또는 목적 취지 등을 알려주는 序 또는 跋文이 없기 때문에 그의 편찬 의도를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체제와 내용으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사문록』은 다소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易學啓蒙』(『계몽전의』) 『禮記』, 『의례경전통해속』 등의 본문과 그 註의 誤釋 誤字에 대한 변론과 교정, 그리고 불충분한 해설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그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경학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취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思問錄』에서 문제삼았던 예문들에 대한 분석을 살펴봄으로써

15) 『우복집』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권9, 24~25장

그의 예학적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의상 표를 만들어전체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1」

번호	篇名	經 文	문제부분
1	曲禮 上	上於東階則先右足 上於西階則先左足	集說
2		席間函丈	疏說
3	曲禮 下	君子行禮 不求變俗 祭祀之禮	集說
4		凡非弔喪非見國君 無不答拜者	集說
5	檀弓 上	孔子既祥五日 彈琴而不成聲	經문의 誤記
6		夏后氏殯於東階之上則猶在阼也	集說
7		孔子之喪 二三子皆經而出	集說
8		曾子與客立於門側 其徒趨而出	集說分註의 臨川 吳氏說
9	檀弓 下	其變而之吉祭也 比至於祔	集說
10		所學於晉國 管庫之士七十有餘家	集說과 長樂 陳氏說
11		戰于郎 公叔孚人 遇負杖入堡者息曰	集說
12	月令	季春 命國難九門	集說
13		仲夏 日長至陰陽爭 死生分	集說
14		季夏 命婦官 染采必以法	集說
15		毋發令而待 以妨神農之事	集說
16		孟秋 鷹乃祭鳥 用始行戮	集說
17		仲秋 循行犧牲視全具按芻	集說
18		仲冬 湛熾必潔	集說
19	曾子問	孔子曰魯昭公練而舉酬行旅非禮也	經문의 誤謬 추정
20		壻已葬 壻之伯父致命女氏曰	集說과 疏說
21	文王世子	君之於世子也 親父也 尊則君也	集說과 吳氏說
22		庶子治之 雖有三命 不踰父兄	經文 錯簡
23		至于贈贈含 皆有正焉	集說
24		敬弔臨贈贈 睦友之道也	集說
25		適饌省醴 養老之珍具云云	集說
26		是故聖人之記事也 慮之以大	集說
27	禮運	國有患 君死社稷謂之義	集說
28	郊特牲	貴誠之義也	集說
29		士使之射 不能則辭以疾	集說

번호	篇名	經文	문제부분
30		天子大蜡八	集說
31		蜡之祭也 主先齋而祭司齋也	集說
32	內則	夫婦皆齋而尊敬	集說
33		五帝憲養氣體而不乞言	集說
34		遂左還授師	集說
35	玉藻	君如尸行接武 大夫繼武	集說
36		聲容靜/玉色	集說
37		天子搢珽 方正於天下也	集說
38		祭席不由前爲躡席	集說
39		凡尊必尚玄酒 唯君面尊	集說
40	明堂位	孟春乘大輅	經文 순서 위치 변경
41	喪服小記	庶子不祭祖者 明其宗也	集說
42		世子不降妻之父母	集說
43		父爲天子諸侯 子爲士	판단보류(集說도불분명)
44		虞杖不入於室 祔杖不升於堂	鄭注 채택, 集說 비판
45		除喪者先重者 易服者易輕者	集說
46		繼父不同居也者 必嘗同居	集說
47		宗子母在爲妻禫	集說
48	大傳	追王太王亶父 王季歷	集說
49		聖人南面而聽天下云云	集說
50		自仁率親 等而上之至于祖名曰輕	疏說
51	學記	君子之教喻也 道而不牽	集說
52		力不能問 然後語之	集說
53	樂記	清廟之瑟 朱弦而疏越	集說
54		仁以愛之 義以正之 如此則民治行矣	集說
55		志微忝殺之音作而民思憂云云	集說 인용 劉氏說
56		武王克殷反商	集說의 근원추정
57	雜記	上客臨曰云云 客立于門西	經文의 오류 가능성
58		男子祔於王父則配	集說
59	喪大記	寢 東首於北牖下	經文의牖자에 대한 의문
60		疾病內外皆掃 男女改服	集說
61		大斂布絞 縮者三 橫者五	集說
62	祭法	有天下者祭百神	集說
63	祭義	樂以迎來 哀以送往	鄭注

번호	篇名	經文	문제부분
64		祭之日入室	集說
65		日出於東 月生於西	集說
66		陰陽長短 終始相巡	集說의 方氏說
67	祭統	夫祭有三重焉	集說
68		尸飲五 君洗玉爵獻卿	經文의 誤衍
69	經解	隆禮由禮 謂之有方之士	集說의 方氏說
70	哀公問	公曰寡人既聞此言也	集說
71		子曰師乎前吾語女乎	集說
72		子曰仁有數 義有長短小大	集說과 呂氏說
73	服問	有大功之喪 亦如之 小功無變也	集說
74	射義	天子之所以養諸侯而兵不用	集說

위의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록』은 『禮記』전편 가운데 25편을 대상으로 각 편의 문제되는 구절을 논한 것이다. 그 문제되는 구절의 經文 혹은 그 註釋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禮記集說』(陳澧의 註釋)에 관한 비판이 가장 많아서 모두 58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經文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 7군데이며, 鄭玄의 注와 孔穎達의 疏 및 기타 학자들의 주석에 대한 비판이 그 나머지를 채우고 있으며, 經文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도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表 1」의 문제되는 내용에서 集說 이외에 鄭注와 孔疏, 그리고 吳氏 方氏 呂氏 설들은 사실상 모두 陳澧의 『禮記集說(이하 집설)』에 해당 경문에 대한 註說로 수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문록』 예기편은 『집설』을 근본 텍스트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복은 자신의 견해가 타당함을 입증하려는 경우 간혹 『集說』에 分註로 수록된 것도 거론하기도 한다. 그는 陳澧의 註釋(『집설』)과 그것에 인용된 여타 주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經文의 原義를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하였고, 나아가서는 禮記 經文 자체에서 발견되는 錯簡 誤衍 등도 변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문록』은 일단 『集說』의 예학 경전으로서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설』에 대한 그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는 그의 예학적 경지가 진호의 그것을 극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량상의 비율을 떠나서 보면 『사문록』은 『집설』보다는 經 자체로 회귀하는 예학적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집설』에 대한 그의 의문과 비판의 방식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의 유형들로 구분된다.

- ㉠ 禮의 이념 또는 원리에 입각한 변론
- ㉡ 經(『禮記』, 『周易』, 『論語』, 『儀禮』, 『周禮』, 『爾雅』, 『孝經』, 『孟子』 등)과 朱子說에 입각한 고증과 비판
- ㉢ 철학적 이치에 입각한 새 해석.
- ㉣ 文勢, 文法, 또는 文義 照觀에 의한 비판
- ㉤ 훈고에 의한 誤字의 교정

위와 같은 구별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며, 대체로 위의 방식들이 한 구절의 논의에 混用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증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위 ㉠의 예로서 먼저 『사문록』 예기편 첫번째 글을 보기로 한다. 이는 『禮記』 曲禮上의 ‘上於東階則先右足 上於西階則先左足’의 이유에 대한 그의 변론이다.

賓과 主가 同行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등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敬을 다하는 도를 얻는 것이다. 계단을 오르고 문에 들어설 때에도 역시 서로 마주 보는 것으로서 禮를 삼아야 앞 뒤의 品節이 차질없게 되

는 것이다. 주인이 東階에 오를 때 층계마다 오른 발을 먼저 올리는 것은 그 얼굴이 서쪽을 향하게 하여 눈길이 항상 賓客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賓客이 西階를 오를 때 매 층계마다 왼 발을 먼저 올리는 것은 그 얼굴이 동쪽을 향하여 눈길이 항상 주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陳澧의) 註에서 각각 들어온 門의 左右를 따라서 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는 듯하다.¹⁶⁾

이 논의에서 그는 ‘禮는 致敬之道’라는 관념을 견지하고, 거기에서 일탈된 『集說』의 내용을 오류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禮는 敬을 실천하는 방도라는 관념이 그의 禮文 해석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아무리 사소한 儀節이더라도 敬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써 『禮記』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곳(「表 1」 43번 항목)에서 그는 禮文 해석의 원리가 天理와 人情이라는 점도 간접적이거나 시사하고 있다. 43번에서는 經文에서 설정한 경우(父가 天子 諸侯이고 子가 士)를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闕疑處로 남겨놓아 일종의 판단보류의 자세를 취한다.

다음은 고증과 禮의 원리에 의한 추론으로써 經文의 誤字를 교정한 예를 보기로 한다. 위 「表 1」의 5번은孔子既祥五日 彈琴而不成聲 十日而成笙歌(檀弓 上)라는 경문 가운데 祥은 禫의 誤字임을 밝히는 그의 견해가 들어있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그는 『예기』 檀弓 上의 “祥而縞是月禫 徙月樂”, “魯人朝祥而暮歌者子路笑之 夫子曰又多乎哉 踰月則其善也”, 喪大記의 “禫而內無哭者 樂作矣”라는 세 조목의 경문을 근거로 禫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악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치가 없다는 점을 고증한

16) 上於東階則先右足，上於西階則先左足——賓主同行相向而不相背 然後致敬之道得，而陞階入門之際 亦得以相觀爲禮 而先後品節不差，主人上於東階而每級先右足者欲其面向西 而日常接於賓也，客上於西階而每級先左足者 欲其面向東而日常接於主人也 註云各順入門之左右者 似無意義。

다. 그리고 雜記 下의 ‘親喪外除’와 間傳의 “禫而後牀禫而後織 無所不佩”에 의거하여 祥에 이르러 居喪의 기간이 이미 끝나서 脫喪(25月)의 儀節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돌아간 어버이에 대한 哀痛한 情이 아직도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聖人은 祥에 이르러도 아직 純吉한 방식으로 처신하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와 같은 經文에 의한 고증과 人情에 입각한 추론을 통하여 그는 이 구절의 祥은 喪의 오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는 5번 항목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고증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대저 이 經(『예기』)의 기록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많으니 또한 이 글자의 잘못됨이 기록의 잘못이 아님을 알겠는가?

그 밖에도 經文의 오류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는 「表 1」의 57번이고, 68번에서는 잘못해서 쓸데없이 끼어들어간 문구(誤衍)를 집어내고 있다. 그리고 19번에서는 孔子의 언급이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항목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항목(5, 57, 68)의 經文 矯正은 『集說』 또는 그 이전의 『禮記注疏』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그의 발견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다.

이러한 誤字의 발견 또는 그에 대한 주장이 성립하는 배경에는 기존의 註釋과는 다른 관점, 또는 보다 철저한 禮 원리의 적용이라는 講學의 태도가 작용했기 때문임을 부언할 수 있다. 이로써 우복의 『예기』 이해는 『예기』 경문 상호간의 연결된 照觀에 의한 비교, 및 관련 사실이 언급된 기타 경전의 문구까지 동원하여 철저한 고증과 훈고를 행하는 차원에 나아갔고 그 결과 기존의 주석서들에서 밝히지 않았던 經文의 오류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언급하는 차원까지 올라갔음을 보여준다. 원래 『예기』는 漢代에 이르러 집적된 경전으로서 孔子 이외의 여러 儒者들의 설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記者

의 오류도 적지않이 지적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疑古의 태도를 지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기』에 대하여 경솔하게 오류를 변별하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점은 『사문록』 예기편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여준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변론과 그에 따른 集說의 誤讀, 誤釋에 대한 구명, 및 경문의 진실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그의 노력 등에서 충분히 감지되는 바이다.

당시 성리학자들의 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理氣論적 관념에 입각한 비판이 담긴 항목들도 있다. 月令편은 해(歲)의 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계절과 각 月의 변화 현상과 그 이치, 및 時候마다 알맞는 정치의 道理와 生活儀禮 등을 제정한 글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集說의 편자인 陳澧가 다시 氣관념(陰陽과 五行)에 입각한 철학적 설명을 가한 부분이 또한 우복의 비판 대상이 된다. 그 항목들은 곧 12, 13, 15 등이다. 이 항목들에서 주로 季節에 대해서 배정하는 陰氣와 陽氣 또는 五行의 氣의 설명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經文의 微意를 간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13)도 지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66번은 그의 陰陽觀을 잘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祭義편의 '陰陽長短 終始相巡 以致天下之和'라는 구절에 대한 方氏說을 비판한 것인데, 여기에 그의 陰陽의 氣를 보는 관점이 적어도 이원적임을 드러낸다. 66번 항목을 인용해 본다.

살피건대 陰陽은 對待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流行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陽은 넉넉하고(饒) 陰은 모자라다(乏)”, “陽은 크고 陰은 작다”, “陽은 나아가고(進) 陰은 물러선다(退)” 등은 對待로 大分한 것이다. 음양이 流行하는 때에 이르면 그들의 饒 乏 進 退는 다시 번갈아 消長한다. 마치 추위가 一分 늘면 더위가 一分 줄고 밤이 一刻 늘면 낮이 一刻 주는 것과 같아서, 陽이라고 해서

항상 넉넉하여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陰이라고 해서 항상 모자라서 물러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서로 뒤섞여 엇갈려서 변화가 그치지 않게 되어 한 해의 功을 이루는 것이다. 이 經의 이른바 “終始相巡而致天下之和”라는 것은 바로 二氣의 流行을 가리키는 것이니, 거기서 말하는 長短은 곧 낮과 밤, 추위와 더위의 消長과 進退라는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方氏는 여기서 陽의 道는 항상 넉넉하고 陰의 道는 항상 모자란다. 그러므로 (二氣가) 다니면 氣가 되고 부여되면 形이 되는데, 무릇 陽에 속한 것은 모두 길고 陰에 속한 것은 모두 짧다고 하였다. 이는 對待로 大分하여 바뀔 수 없는(고정적인) 속성으로써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한 번은 길어지고 한 번은 짧아져서(一長一短) 마지막이 되면 다시 시작함이 있어서 서로 이어져 순환함이 일찌기 끊김이 없는 까닭에 天下의 調和를 오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면 앞 뒤가 서로 모순되고 首尾가 찢어져 버려(衡決)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른바 一長一短 終始相巡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造化에서 구하지만 가까운 것은 보지 못한 것이다.¹⁷⁾

이 글에서 우복은 對待와 流行이라는 두 관점으로 經文의 陰陽과 그 설명을 풀이하야 함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禮記』의 해석에 있어서 理氣論(특히 氣論)을 동원한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의 『禮記』 해석은 이기론이라는 철학적 사고의 기반 위에서 그 정밀함을 얻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한 비판의 예는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산견된다. 54번 항목 樂記편의 仁以愛之 義以正之 如此則民治行矣 라는 구절에서 陳澧의 註가 仁義를 禮樂之補라고 해석하는 데 대한 그의 반론이 하나의 예이다. 그는 仁義는 禮樂之本, 禮樂은 仁義之用이라고 하여 兩項을 상호 본과 用의 관계라고 하여 進호의 주를 倒置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禮는 仁義를 節文한 것이고 樂은 仁義를 즐기는 것(樂)이라는 孟子의 관점에 근거하여 이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사고는 『論語』의 文質관념으로 소

17) 『우복집』 별집 권2, 33장.

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禮樂보다 仁義가 더 근원적이라고 보는 이유를 후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本性인 반면 전자는 그 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한다. 즉 天(仁義의 性) 人(禮樂의 事)이라는 논리적 연역의 이치를 들어서 그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가 禮樂의 修養 또는 실천에서 仁義의 性 또는 그 마음이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도 함께 알 수 있다.

그리고 67번 항목은 祭統편의 夫祭有三重焉 獻之屬莫重於裸 聲莫重於升歌 舞莫重於武宿夜 此周道也 凡三道者所以假於外而以增君子之志也 에서 진호의 주석과 다르게 해석하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서 禮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진호보다 우복은 禮란 인간의 내면적 誠心을 표출하는 方道라는 점에 더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살피건대 슬픔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을 마치 살아계신 분을 뵈듯이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誠)이 내면을 주관하는 것이다. 오르고 내리며 祭物을 바치고 술잔을 올리며 소리내어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음식을 들게 하는 것은 禮가 외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誠이 속에 있어야 禮로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禮가 아니면 또한 그 誠을 행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道(裸, 升歌, 武宿夜)는 외형적인 일(外)을 빌어서 그 君자의 생각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른바 '外'가 곧 세 가지 방식(三道)임은 所以라는 글자와 글의 흐름(文勢)을 자세히 본다면 지극히 분명하며, 이 세 가지 방식이 다시 外物을 빌어온다는 것은 아니다. 陳氏는 裸은 鬱蒼酒에서 빌어오고 歌는 聲音에서 빌어오고 舞는 방패와 큰도끼(干戚)에서 빌어온다고 하였으니 역지로 끌어댄 것이 심하여서 의미가 없다.¹⁸⁾

사실 이 인용문은 진호와 우복의 차이는 단순히 禮를 보는 관점보다는 禮文을 보는 안목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은 그의

18) 위의 책, 33~34장.

禮學이 단순히 文物의 具備에 의한 禮節의 履行을 중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내면적 심성의 발로로서의 禮실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도 시사한다. 이러한 그의 사고를 위에서 언급한 仁義와 禮樂의 관계를 本과 用으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자면, 誠本禮用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誠이 속에 있어야 禮로써 그것을 행하는 것이며, 禮가 아니면 또한 그 誠을 행할 길이 없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本과 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誠과 禮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그의 관념이 뚜렷이 표출된다.

한편 喪服小記, 雜記, 喪大記, 服問, 祭義, 祭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듯 하며, 이 과정에서도 우복은 喪祭禮에 관한 經文에 대한 주석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辨析을 가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는 대부분 集說의 편자(陳澧)가 구두를 잘못 끊었거나 문자 또는 구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곳을 집어 내어 변석한 글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우복의 치밀하고도 신중한 논리전개에 의한 辨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고찰은 피상적인 고찰에 해당하지만 이것으로나마 그의 사문록 예기편의 특징과 업적을 결론짓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문의 오류와 오자의 시정, 둘째 『예기』를 비롯한 제경전 및 朱子說을 동원한 고증, 세째 집설의 오류에 대한 精細하고 緻密한 辨析(이점은 당시 어느 예학서(특히 경학관계 저술)보다도 그 논리와 변론에 있어서 뛰어나게 보인다), 네째 집설이 일부 수용하는 정현의 注와 공영달의 疏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여 禮文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禮(또는 禮樂)를 誠(또는 仁義)과 用과 本の 관계로 보는 사고이다.

그러면 우복의 『사문록』에서 이루어진 『禮記』 經文 및 註釋의 오류에 대한 변석과 교정은 어떠한 학문적 의의를 지니는가? 이 시기에 이르러 古

禮의 정확한 認識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儀禮』, 『禮記』 등 禮經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복의 스승인 西厓가 찬술한 『喪禮考證』과 鶴峯(金誠日)의 同名의 禮書에서 함께 『禮記』의 喪禮관련 글이 『朱子家禮』의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인용 고증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주자가례』에 대한 보완과 일부 수정이 『예기』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예학의 심화과정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복의 『사문록』 예기편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추이가 더욱 진전된 단계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西厓 학봉의 예학 단계보다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그가 서애의 제자로서 스승의 업적을 발전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러하고, 『상례고증』이 『예기』의 단순한 인용에 의한 고증에서 그친 것이라면, 『사문록』은 『예기(집설)』의 문제점들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예기』의 經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려고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의 당시에 『禮記』 제편의 경문에 대한 변석을 행한 沙溪의 『經書辨疑』가 편찬된 것도 그러한 추세인 예이다. 우복의 『사문록』은 치밀한 변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문록』은 우복의 저술뿐 아니라 당시 예학관계 저술들 가운데서도 백미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탁월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5. 결론 : 퇴계학파의 『예기』해석의 특징

퇴계의 학맥에서 『예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방식은 위에서 살폈듯이 고증적 방식과 해석적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고증적 방식은 이미 퇴계에게서 단편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예기』를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고증의 방식을 취한 것은 학봉과 서애의 『상례고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미수의 『경례유찬』, 「십이월령고정」도 그러한 전통을 잇는 저술로 인정될 수 있다. 또 해석적 방식은 지산의 「곡례수장도」와 우복의 『사문록』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사문록』은 재전제자까지의 퇴계학맥으로 볼 때에 『예기』해석의 치밀함과 아울러 고증에 입각한 변석이 매우 돋보이는 저술이다.

퇴계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예기』에 관한 고증적 연구 혹은 해석적 연구가 기호지방의 율곡의 학맥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미루더라도, 일단 다음과 같은 의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자가례』를 하나의 미비된 예서로 간주하는 퇴계의 학문적 관점이 고경으로서의 『예기』를 예설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하고 아울러 『예기』 자체에 관한 고증과 해석의 작업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론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퇴계 이후 재전제자에 이르는 기간에 『예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양적으로도 퇴계 당시에는 『예기』의 일부 경문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예설을 확정하는 상태였던 것이, 서애와 학봉, 그리고 미수의 단계에 이르면서 상례와 제례에 관한 『예기』 경문의 고증으로 더욱 전문화되면서 일정한 분량의 저술을 낳게 되었다. 또한 질적으로도 연구의 깊이가 심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간단한 저술이지만 지산의 「곡례수장도」는 퇴계가 심혈을 기울였던 성학의 원리와 예학의 원리를 조화 및 상용시키려는 관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당시 퇴계 문인들의 예학이 단순히 예문의 고증과 훈고에만 치중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학의 성취를 목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문록』은 앞에서 살폈듯이 禮의 이념 또는 원리에 입각한 변론, 經(『禮記』, 『周易』, 『論語』, 『儀禮』, 『周禮』, 『爾雅』, 『孝經』, 『孟子』 등)과 朱子說에 입각한 고증과 비판, 철학적 이치에 입각

한 새 해석, 文勢, 文法, 또는 文義 照觀에 의한 비판, 훈고에 의한 誤字의 교정 등의 유형으로 그 해석학적 방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기』의 經傳에 대한 해석이 이기론 및 예의 원리에 입각한 일종의 철학적 사유의 정밀함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예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저술이라고 판단된다.

또 미수의 『경례유찬』에서 대부 사와 구별되는 천자와 제후의 예에 대한 경문을 고증하는 것은 이 당시 퇴계의 학맥에 속하는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신분의 차등에 따른 예의 차등을 엄격하게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를 시사하는 한편, 그로부터 이러한 남인들의 예학적 입장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수가 己亥禮訟에서 군왕을 위해서는 참최삼년복을 입는다는 입장, 즉 왕의 예와 대부의 예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예학적 입장과 연관을 갖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퇴계학파의 『예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더욱 전문적인 저술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보다도 古禮의 정확한 인식의 노력의 결과이자 동시에 예 실천을 통한 개인 인격의 성취, 및 인륜도덕에 입각한 사회 질서의 회복이라는 과제의 자각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례의 정확한 인식의 방법은 철저한 고증의 방식과 아울러 예의 원리에 대한 이기론적 검토와 기타 철학적 사유의 방식이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하나의 저술 속에 적절하게 구사한 것은 우복의 『사문록』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저작들이 이후 퇴계학맥의 예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On the studies of Yeki in the Toegye School

Yoo, Kwon-Jong

This study has a purpose to explain the context of interpretations and commentaries of Yeki, one of old Chinese classics, on the Toegye School from 16th century to 17th century, and to discuss the features and historical value of their works. In the Toegye School, confucians works to approach to Yeki show two different ways. The one is a bibliographical study, the other is a hermeneutic study. The bibliographical study was started by Toegye and has been regularized by Hakbong(Kim Sung-il) and Soae(Yu Sung-ryong) in their each works. Their each works had the same name, that was Sang-rye-go-jeung which meant a bibliographical study of funeral ceremony. Misu(Hu Mok) had also made bibliographical studies, which were Gyung-rye-yu-chan and Si-bi-wol-lyung-go-jung. The hermeneutic studies were made by Jisan(Jo Ho-ik) and Ubok(Jung Gyung-se). Jisan's work is Gok-rye-su-jang-do and Ubok's work is Sa-mun-lok. Specially the latter is a very important one because its hermeneutic study as well as the bibliographical method are very correct and fine.

The features of Yeki studies in the Toegye School can be explained as follow: the first is from Toegye to Misu their bibliographical studies had developed and specialized more and more. The second is that the school had achieved a work which was the finest one of hermeneutical studies in the 17th century of Chosun Dynasty with its philosophical debates as like Ubok's Sa-mun-lok. The third is to emphasized the rites different in grades of social status in Misu's Gyung-rye-yu-chan. The last is to combine and harmonize rite studies and sage learning in Jisan's Gok-rye-su-jang-do.

Key Word

Yeki, Toegye School, bibliographical study, hermeneutic study